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유근택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밤 풍경을 통해 바라본
정서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곽아람

밤 풍경을 통해 바라본
정서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유 근 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곽 아 람

인 준 서

곽아람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인은 21세기 대한민국 도심에 살고 있다. 초고속 경제성장과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의료,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한 국가에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현재 88만원 세대라는 타이틀이 붙은 세대의 일원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기보다 현재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사는 YOLO족의 출현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 미래에 대한 허황된 꿈을 가지지 않게 되어 버린 젊은 세대를 잘 묘사해 준다. 본인 또한 현재 한국 사회에 놓여있는 이 세대에 한 개인으로써 느끼는 부정적 감정과 연약한 자아를 자각하면서, 개인의 불안한 심상을 도시의 밤 풍경에 빗대어 제작된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불안의 감정이 낮에서 밤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조되었음을 관찰하였으며, 매일 마주했던 밤 풍경의 이미지는 개인의 감정 상태에 따라 낮설게 느껴지기도 하며 새로운 이미지로 다가왔다.

본인의 작업은 사적인 일상과 감정을 기록하는 일기를 쓰는 행위와 같이 매일 바라본 밤의 풍경을 기록한 드로잉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당시 품고 있던 불안과 연약한 자아를 마주하는 밤 풍경에 이입시켜 그림으로 기록하는 행위를 통해 감정의 해소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었음을 서술한다.

어두운 밤의 풍경을 대신해 흐릿하고 여린 파스텔 톤의 색감을 주로 사용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불안하고 연약한 감정의 이미지를 밤의 풍경에 대입하여 표현하였다.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대한 도시의 밤 이미지로 시선이 확장되었고, 서울의 야경을 보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 조망한 풍경을 3인칭의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한 밤

풍경을 바라볼 때는 대상에 감정이입이 극대화되었다면, 멀리서 조망한 밤 풍경은 개인의 감정이입이 최소화되고 객관적으로 대상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같은 도시 아래 다양한 삶의 풍경이 공존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서로 다른 타자가 모여 형성된 거대한 도시의 각기 다른 삶에 공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본인이 경험한 밤의 모습과 다양한 삶의 풍경이 존재하는 도시의 밤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개인의 감정과 멀리서 바라본 타인들의 풍경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번 논문을 통해 개인의 감정에 대한 고찰과 다수의 다양한 삶의 풍경을 본인만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그려낸 작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도시 풍경의 변화와 야경에 대하여	3
III. 작품 분석	10
1. 밤 풍경을 통한 정서 표현	10
(1) 불안	10
(2) 흐린 풍경	13
2. 밤 일기	17
3. 태양에 가려 못 봤던 것들	19
4. 도시의 다양한 장면	22
IV. 결론	28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곽아람, <밤 일기>, 27.3cm×22cm, 장지에 수묵채색, 2017 ...	12
【작품 2】	곽아람, <밤 일기>, 27.3cm×22cm, 장지에 수묵채색, 2017 ...	12
【작품 3】	곽아람, <밤 일기>, 27.3cm×22cm, 장지에 수묵채색, 2017 ...	13
【작품 4】	곽아람, <white city 1>, 53cm×45.5cm, 장지에 수묵채색, 2018	14
【작품 5】	곽아람, <white city 2>, 53cm×45.5cm, 장지에 수묵채색, 2018	14
【작품 6】	곽아람, <밤 일기>, 각 27.3cm×22cm, 장지에 수묵채색, 2016-2018	18
【작품 7】	곽아람, <태양의 가려 못 봤던 것들>, 227.3cm×181.8cm, 장지에 수묵채색, 2017	21
【작품 8】	곽아람, <scene 1>, 162.2cm×130.2cm, 장지에 수묵채색, 2017	23
【작품 9】	곽아람, <scene 2>, 162.2cm×130.2cm, 장지에 수묵채색, 2017	24
【작품 10】	곽아람, <scene 3>, 162.2cm×130.2cm, 장지에 수묵채색, 2017	25
【작품 11】	곽아람, <scene 4>, 162.2cm×130.2cm, 장지에 수묵채색, 2017	26
【작품 12】	곽아람, <6시 21분>, 227.3×181.8cm, 장지에 수묵채색, 2017 ...	27

도 판 목 차

- 【도판 1】 김홍도, <송석원시사야연도>, 25.6cm×31.8cm, 지본수묵, 1791,
한독의약박물관 5
- 【도판 2】 김호석, <축정>, 115cm×230cm, 수묵채색, 1980, 작가소장 6
- 【도판 3】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84.1cm×152.4cm, 캔버스에 유채, 1942,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 7
- 【도판 4】 카미유 피사로(Camille Pissarro), <몽마르트 대로-밤>,
65cm×55cm, 캔버스에 유채, 1898, 런던 내셔널 갤러리 8

I. 서론

본 논문은 2018년 ‘태양에 가려 못 봤던 것들’이란 제목의 석사 청구 전시를 통해 발표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작업에 대한 내용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접하는 사회 속 불안과 일상 속에서 경험한 개인의 나약함을 매일 마주하는 밤 풍경에 투영하여 표현함으로써 연구자가 느낀 불안과 불완전함의 감정을 드러내고자 한 작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불안이 엄습한 마음 상태로 바라본 밤의 풍경은 그동안 의식하지 않고 보았던 풍경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다가왔다. 본 연구에서는 당연하게 지나쳤던 사물과 풍경이 어느 순간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온 지점에 주목한다.

데이비드 호크니¹⁾의 책 ‘다시 그림이다’에서는 미술에서의 본다는 것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본다는 것의 핵심은 전적으로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먹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고, 잡아먹히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렇지만 미술은 그와는 다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술은 그 자체를 위한, 즐거움을 위한 비현실적인 관찰인 것입니다.²⁾

1) 영국의 화가이자 사진작가. 팝아트와 사진에서 유래한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자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일러스트레이션, 무대 디자인 작업도 하였으며 《호크니가 쓴 호크니》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72958>.

2) 마틴 게이퍼드(martin Gayford). 『데이비드 호크니와의 대화 다시 그림이다』. 디자인하우스. 2012. p. 85.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본다. 바라봄을 통해 이미지들을 인지하고 필요에 의해 다른 감각들을 사용하여 생활한다.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일상에서 특별한 것 없는 당연한 행위로 간주된다. 본인은 시각 행위로서의 생물학적인 기능 이외에 바라봄으로 느끼게 되는 개인의 심상을 대상에 투영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본인이 바라본 ‘밤의 풍경’을 통해 표현하려 한다.

작업의 시작은 익숙해서 지나쳤던 풍경들이 낯선 느낌으로 다시 조우될 때, 그 순간 본인의 시선이 품고 있는 심상들을 표현하는 ‘기록 작업’으로부터 출발했다.

본 논문의 II장 본론에서는 동양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풍경을 인식하는 태도의 변화와 한국의 산업화 이후 풍경의 변화에 따른 작품에 출현에 대해 살펴보고 본인의 작업의 주요한 소재가 되는 21세기 도시의 밤 풍경에 대해 설명한다. 전기의 유입으로 인해 24시간 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일상적으로 바라보게 된 도시의 밤 풍경은 본인이 현재 위치한 공간과 시간을 함축적으로 설명해 준다.

본 논문의 III장 본론에서는 본인의 작품에서 밤 풍경을 통해 개인의 감정을 투영하는 표현방식에 대해 논하며 한국 사회가 처한 암울한 시대적 분위기와 불안한 청년층의 삶 속에서 자리한 개인이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에 자유롭지 못하고 홀로 완전할 수 없음을 인지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밤 풍경을 바라보는 주관적인 시선과 흐릿하게 표현된 풍경의 의도를 설명하였고 도시의 밤 풍경의 다양한 장면을 그려 제작한 작품을 통해 다양한 타자가 공존하는 삶의 풍경을 이미지화하였음을 서술하였다.

II. 도시 풍경의 변화와 야경에 대하여

시대가 흐름에 따라 풍경은 변화한다. 자연 풍경이 주를 이룬 고대부터 산업화 이후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삶의 터전의 변화는 풍경의 변화를 가져왔고 시대의 흐름을 설명해준다. 본론 II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풍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서술하며 현재 본인이 위치하는 시공간을 보여주는 대상이 되는 도시의 밤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고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산수는 고대인들에게 ‘거대한 미지의 세계’로 인식되었다. 그들에게 산수는 단지 신비감과 경외심의 대상이라 묘사되어 있다. 이는 ‘산해경(山海經)’³⁾ 속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동쪽으로 300리를 가면 청구산(靑丘山)이라는 곳인데 그 남쪽에서는 옥(玉)이, 북쪽에서는 푸른 흙이 많이 난다. 이곳의 어떤 짐승은 생김새가 여우같은데 아홉 개의 꼬리가 있으며 그 소리는 마치 어린애 같고 사람을 잘 잡아먹는다. 이것을 먹으면 요사스러운 기운에 빠지지 않는다.

- 「남산경(南山經)」⁴⁾

위에서 언급한 산해경의 한 대목인 남산경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고대

3) 춘추시대에 저술된 지리서로 산의 위치와 산속의 생명체, 전설 등이 소개되어 있다. 현전하는 것은 전한(前漢) 유수(劉秀)의 교정본이다. 본문에 소개된 괴수 이미지는 후대에 제작된 것이다.

고연희.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 도서출판 돌베개. 2007. p. 21.

4) 네이버 지식백과. 산해경 [山海經]-상상력의 보물창고.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 2006. 5. 22., 휴머니스트

인들은 산수에 사는 동물들을 기괴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연을 거대한 미지의 세계로 보는 세계관은 삼국시대 초기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변란이 잦아지고, 상호 살육의 무법천지가 벌어지는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산으로 들어가 삶을 연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험난한 산수 은둔 생활은 동경적인 삶이 되었고, 그 이후 산수문학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들짐승들이 튀어나오고, 쉬이 곡식을 구할 수 없어 산수에서 삶을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조선 중기까지 산수는 현실과는 격리된 환상의 공간으로 몽환적인 옛 성현의 사상과 운치가 가득하였다. 이 시기의 산수는 모두 이상적이며 관념적인 산수경을 그렸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념적 공간에서의 산수에서 벗어나 직접 산천을 찾아가 실경을 보고 그린 ‘진경산수화’가 출현한다. 당시 문인들은 당대 최고의 화가들과 함께 산천을 유람하며 우리의 산수를 직접 경험하고 산수화를 그리도록 요청하였다.

진경산수화의 출현이란, 이상과 상상의 관념에 유람과 거주의 체험을 반영하는 커다란 변화이자 산수관의 변화였고, 문인들의 자기표현 욕구였으며, 나아가 말할 나위 없이 우리 산천을 발굴하고 표현하는 열정의 과정이었다.⁵⁾

산수를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은 그것의 생생함에 매료되어 산수를 술과 여인에 비교하였다고 한다.

5) 고연희.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 도서출판 돌베개. 2007. p.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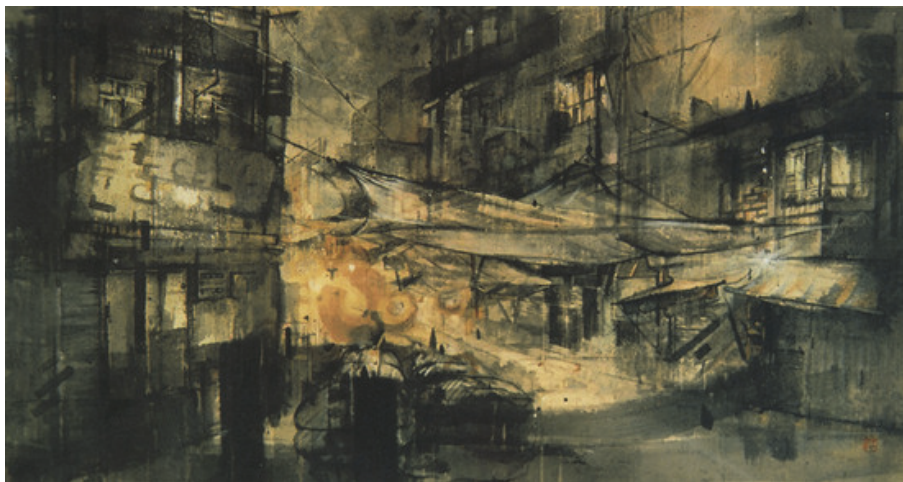
【도판 1】 김홍도(金弘道), <송석원시사야연도>, 25.6cm×31.8cm,
지본수묵(紙本水墨), 1791, 한독의약박물관

조선 후기 화가로 산수화와 풍속화가 뛰어났던 김홍도(金弘道)의 【도판 1】은 둥근 보름달이 밝게 뜬 밤에 9명의 문인들이 시를 짓는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 그 자리에 함께 했던 김홍도가 그린 작품이다. 숲속 빈터에 자리한 인물들의 주변을 울창한 나무들이 감싸고 있으며, 달 주변의 어스름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도판 1】에 보이는 산수와 달빛은 자연과 벗 삼아 풍유를 즐기는 문인들의 모습을 풍요롭고 신비롭게 비추어 준다. 고즈넉한 풍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조선 후기까지 그려진 풍경은 산수가 주를 이루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산과 바다보다는 인간이 이룩한 고층건물과 포장된 도로가 즐비한 장소에서 생활하는 삶의 풍경으로 변화되었고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도시가 되었다.

19세기 말, 최초로 경복궁의 밤을 밝힌 이래, 전기의 보급은 생활을 크게 변화시켰다. 1965년 말 농어촌 12%, 도시 51% 수준에 불과하였던 전기 보급률은 1979년이 되면서 전국 평균 98.7%로 급상승하게 되었다. 전력은 산업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전깃불은 사람들의 활동 시간을 연장시켜 주었다. 석유 등잔, 호롱불은 점차 골동품이 되어 갔다.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도시화를 촉진시켰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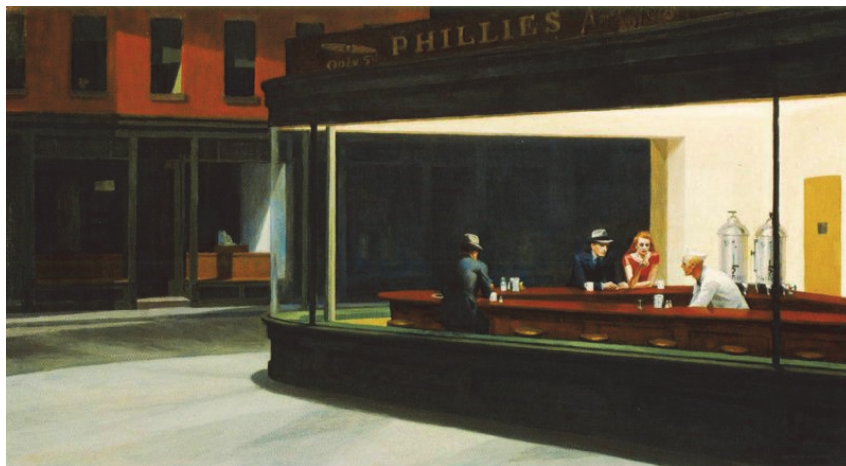


【도판 2】 김호석, <추정>, 115cm×230cm, 수묵채색, 1980, 작가소장

6)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2권-10세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휴머니스트 . 2002. p. 218.

한국화 작가 김호석의 【도판 2】는 산업화를 겪은 이후의 현실 풍경을 반영한 작품으로, 어둡해진 골목 사이를 비추는 노란 불빛과 투박해 보이는 건물은 80년대 서민들의 밤의 풍경을 보여준다. 【도판 2】의 풍경을 통해 급속히 변하는 시대에 흐름에 맞춰 보이는 현실의 이미지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인은 【도판 1】과 【도판 1】을 그린 시기로부터 약 200년 후에 제작된 【도판 2】를 통해 사회 변화와 맞물려 변화된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도판 1】의 풍경은 무위자연과 벗 삼아 달빛이 비치는 밤 시간에 시를 나누는 문인들의 비밀스러운 모임을 표현함으로써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도판 2】에 드러난 저녁시간 동네의 풍경은 도시화가 촉진됨으로 생겨난 뻣뻣한 삶의 풍경을 대변해 주며 그 시기에 서민들의 일상을 상상하게 만들었다.



【도판 3】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84.1cm×152.4cm, 캔버스에 유채, 1942,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서양의 산업혁명 또한 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삶의 풍경의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미국의 산업혁명이 발생한 이후, 도시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포착하여 도시민의 삶에 절망감과 고독감을 표현한 미국의 화가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는 그의 작품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을 통해 도시인의 고독과 소외를 다루었으며, 호퍼는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곳에서 대도시의 고독을 보았다'라고 말하였다.



【도판 4】 카미유 피사로(Camille Pissarro), <몽마르트 대로-밤>, 65cm×55cm, 캔버스에 유채, 1898, 런던 내셔널 갤러리

인상주의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프랑스의 화가 카미유 피사로(Camille Pissarro)는 그의 생애 말년에 몽마르트에 위치한 호텔 맨 꼭대기 층의 방을 빌려 시가지를 내려다보면서 시간대에 따라 변하는 도시의 풍경을 표현한 작품 <몽마르트 대로> 연작 24점을 남겼다. 그는 특히 밤거리의 풍경을 좋아했으며, 어두운 밤거리에 전등이 들어오면서 밝혀진 불빛을 관찰하고 포장도로 위에 밝게 얼룩진 불빛을 인상파적 해석으로 표현하

였다.

위에서 살펴본 작가들의 도시의 밤을 표현한 작품을 통해 산업혁명 이후, 철도가 놓이고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서 변화된 풍경을 바라보며 지나게 된 작가 개인의 심상 표현과 새롭게 들어온 문물에 대해 탐구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

본인은 전기의 보급으로 인해 24시간 문화 형성이 가능해지면서 호화롭게 빛나는 도시의 야경이 현대사회를 대변해주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급격한 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는 과학기술과 경제의 성장을 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피커의 출현과, 3D프린터로 건물을 만들고, 1만 대의 드론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밤하늘에서 화려한 묘기를 부리는 광경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문물의 출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표면을 호화로워 보이게 만든다.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룩한 현재 대한민국의 서울은 포화상태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까운 수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뻘뻘하게 들어선 삶의 터전이 펼쳐진 이곳에는 낮과 밤의 구분 없이 반짝이는 불빛들로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춘다. 도심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나 팔각정에서 바라본 도시 풍경은 24시간 꺼지지 않고 노동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것 같다가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열정의 대한민국을 보는 것과 같은 괴리감을 주었고 도시의 야경은 본인의 작업에서 개인의 감정을 이입시켜 표현한 작품과 타자들의 다양한 삶의 풍경을 대변해 주는 대상이 되었다.

Ⅲ. 작품 분석

1. 밤 풍경을 통한 정서 표현

(1) 불안

‘과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살기 힘든 청년세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하고도 답 내릴 수 없는 질문들은 나의 불안의 요소를 잘 설명해 준다.

세계적인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Galileo Galilei)가 개량된 망원경을 발명한 목적은 실용적인 기술과 기구를 대량 판매하여 수익을 얻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이었다고 한다. 이 또한 사는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작업하며 생활하는 작가들의 환경은 더 나을까? 많은 수의 작가들은 아르바이트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8월 고용지표가 나오고 ‘고용 절벽’, ‘고용 참사’, ‘외환위기 이후 최대’, ‘실업자 113만 명’등의 부정적 단어들에 쏟아지지만 실업률은 감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일자리는 언제나 없다. 대학 생활 내내 작가가 되기를 선망하며 졸업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주(主)가 되어 버리는 현상을 겪는 예술인이 우리나라엔 너무도 많다.⁷⁾

7) PUBLIC ART, 2018.10월호. 편집부. p. 46.

본인은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의료기술과 과학 발전을 이룩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현재의 젊음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연애, 결혼, 출산과 더불어 이제는 건강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N포 세대⁸⁾에 한 일원인 셈이다. 한국 사회가 국면 한 위와 같은 현상은 개인의 불안이라는 감정을 야기했고 더불어 연약한 나의 본성을 깨닫게 만들었다.

여린 밤, 깨질듯한 감성, 그 분위기
여리고도 하얀 밤
건드리면 어떻게 되어버릴지 모르는
위태한 밤.
- 2월 6일 작업노트

위와 같이 표현한 불안의 감정을 밤 풍경이라는 대상을 통해 기록하여 작업하였다. 【작품 1】은 추운 겨울에, 이전에는 지나치기만 했던 정류장에 내려서 격양된 불안의 감정을 잠재우기 위해 멍하니 걷다가 바라본 풍경이다. 처음으로 바라본 새로운 장소의 모습은 본인의 감정을 대변하듯이 적막하고 외로워 보였다. 【작품 2】는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개를 푹 숙이고 바라본 밤 그림자이다. 당시 본인의 심리적 상태와 정신적 피로를 상기시키는 이 작품은 시선을 떨구고 힘없는 자세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작품을 통해 상상할 수 있다. 【작품 3】는 버스 안에서 차창을 통해 바라본 바깥 풍경이다. 낮과 밤의 경계지점에 있는 노을은 본인의 감정을 더 일렁이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서서히 저무는 노을을 보며 감정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많은 위안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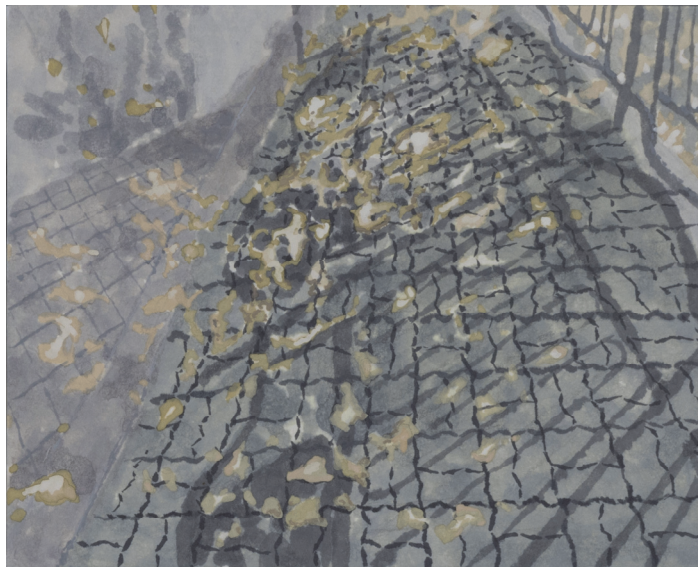
8)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포기한 게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박문각, 「N포세대」, 『시사상식사전』, 201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45263&cid=43667&categoryId=43667>>



【작품 1】 곽아람, <밤 일기>, 27.3cm×22cm, 장지에 수묵채색, 2017



【작품 2】 곽아람, <밤 일기>, 27.3cm×22cm, 장지에 수묵채색, 2017



【작품 3】 곽아람, <밤 일기>, 27.3cm×22cm, 장지에 수묵채색, 2017

(2) 흐린 풍경

【작품 4】, 【작품 5】, 【작품 7】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본인이 표현한 밤의 이미지는 ‘어두운’밤의 이미지 보다 흐릿하고 뿌연 풍경에 가깝다. 본인이 생각한 불안과 연약함의 색은 까맣고 어두운색이 아니었고, 오히려 대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흐릿하고 하얀 이미지이다. 제작된 작품에서 밤 풍경이 흐릿하거나 뿌옇게 보이는 이유는 개인 내면의 ‘연약한 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불안한 상황들 속에서 생기게 된 내면의 요동치는 감정은 ‘태양에 가려 못 봤던 것들’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작품 4】 곽아람, <white city 1>, 53cm×45.5cm, 장지에 수묵채색, 2018



【작품 5】 곽아람, <white city 2>, 53cm×45.5cm, 장지에 수묵채색, 2018

‘깨지기 쉬운’이라는 단어는 이른 나이부터 나 자신을 인지할 수 있는 단어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약점이라 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현실의 수용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정말 강하고 무적이라 생각할 때 가장 흥미롭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약함과 취약성에 대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흥미롭고 근본적이다.

-볼프강 틸만스(Wolfgang Tillmans)

Fragile is a word I could recognize in myself from an early age. And I didn't see that as a weakness. I saw That as an acceptance of reality because I observed that I found people the least interesting when they thought they were really strong and invincible. But people who are in touch with their fragility and have a sense of their own vulnerability, I found much more interesting and ultimately.⁹⁾

-Wolfgang Tillmans

위에 인터뷰는 독일의 사진작가 볼프강 틸만스(Wolfgang Tillmans)의 ‘Fragile = 부서지기 쉬운’ 인간의 내면에 대해 언급이다. 볼프강 틸만스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인지하는 것은 본인의 작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내면의 연약함이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길 원하였고, 일반적으로 어두움을 상징하는 ‘밤’의 이미지를 본인만의 표현방법으로 나타내려 하였다.

9) davidzwirner, 「Wolfgang Tillman's recent interview」, 『instagram』, 2018.7.19
<https://www.instagram.com/p/BIYxz-oA1f5/?utm_source=ig_web_copy_link>

작업화면 속에 먹의 사용을 줄이고 어두움을 상징하는 색을 최소화하여 밤이 가진 어두운 색채를 안개가 낀 듯한 흐릿하고 뿌연 이미지로 표현하려 하였다. 주된 재료로는 장지, 먹, 호분¹⁰⁾과 한국화 채색 물감을 사용하였고 보일 듯 말 듯 한 색으로 밀칠을 한 후 종이 위에 칠한 물감이 마르면 계속해서 색을 덧입혀 본인이 의도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 채색 과정 중 호분을 사용하여 채도를 낮추어 작품의 분위기가 튀지 않고 잔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업하였고, 불빛의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옅은 색을 여러 번 겹쳐 채색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과정은 본인의 감정에 부합하는 밤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10) 흰색 안료. 바닷가 모래사장에 있는 풍화된 대합(大蛤), 굴 등의 조개껍질을 빻아 만들기 때문에 합분(蛤粉)이라고도 한다.
박연신, 『색채용어사전』, 도서출판 예림, 2007.

2. 밤 일기

인간은 삶에 순간 속에서 수없이 많은 감정을 갖고 살아간다. 본인의 【작품 6】은 불안하고 나약한 개인의 감정을 버스 안에서, 길거리를 혼자 걸으며 바라본 밤 풍경에 빗대어 표현하여 제작한 작품이다. 일상을 마친 하룻길에 도시와 도시를 오가며 보이는 일렁이는 불빛들은 대학교를 통학하던 6년 내내 무의식적으로 스쳐 지나갔던 풍경에 불과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행위는 아무런 목적이나 의도 없는 일상적 행위에 불과했다. 단순히 무엇의 위치를 보기 위하여, 혹은 무엇을 먹기 위하는 등의 생물학적인 역할로서의 시각적 행위였다.

어느 순간 단순했던 일상의 풍경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졸업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안을 마음에 품은 시기에 보이는 풍경은 본인에게 이전과 다른 이미지로 다가왔다. 잔잔하게 스쳐지나 가지 않고, 거세게 요동치며 나의 연약한 자아를 인지하게 만드는 풍경들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대상은 그대로 이거나 변함없을지라도 본인이 겪고 있는 감정의 모습은 시시각각 그 내면의 감정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불안의 창구를 통해 바라본 밤 풍경을 하루하루 기록하듯 그리기 시작했고, 감정을 기록한 드로잉들은 어렸을 적에 하루하루의 일과를 적었던 일기 쓰기와 유사한 형태를 가졌다. 매일의 일상이 모여 한 권의 일기장을 채워가는 과정처럼 본인은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보인 풍경들에게서 얻은 이미지들을 재료로 삼아 순간의 분위기, 온도, 색깔 등을 상기시켜 표현하는 작업을 이어나갔다.



【작품 6】 광아람, <밤 일기>, 각 27.3cm×22cm, 장지에 수묵채색,
2016-2018

고민이 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당시의 감정과 상태를 솔직하게 글로 적어 품고 있던 걱정들이 해소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일기의 효과는 감정을 배설하는 창구로써 심리적 안정을 주는 역할과 더불어 중독자들의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매일의 감정 상태를 기록하는 행위는 하루를 돌아보게 만들기도 하며 감정을 정리하고 해소하는 배출구가 되기도 한다. 밤 풍경을 본인만의 표현 방법으로 기록하는 것은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반복적 행위였으며 하루하루 감정 일기가 쌓여갈수록 불안한 감정의 해소를 느끼게 되었다.

3. 태양에 가려 못 봤던 것들

우리는 태양이 비추는 시간과 태양이 저무는 시간이 양립하는 공간에 살고 있다. 본인은 하루 중 낮과 밤을 경험하면서 시간에 흐름에 따라 사용하는 감각, 장소, 감정의 변화, 그리고 풍경의 변화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였고, 본인의 【작품 7】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생각은 심화되었다.

【작품 7】은 <태양에 가려 못 봤던 것들> 이라는 제목에서 의도한 바와 같이 낮에서 밤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느낀 세 가지 변화를 재료 삼았고, 어두움이 깊어지고 도시의 수많은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모든 것을 비추는 태양이 존재하는 낮 시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꿈틀꿈틀 보이기 시작하였다.

시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변화로는 밝았던 거리가 어두워지면서 시간을 맞춰 가로등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졌고,形形色색의 야광 불빛들이 거리 위에 비추었으며,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거리 위를 수놓은 도시 위에 별과 같이 보였다. 어둠이 자리 잡은 곳에서 빛나는 불빛들은 낮의 보이는 빛과 대조적으로 더욱 선명하고 색이 뚜렷하였으며 같은 공간을 전혀 다른 풍경으로 만들어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미지의 변화는 밤 풍경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저속셔터로 도시의 밤 풍경을 포착하여 찍은 사진에서 보이는 불빛의 움직임은 본인의 작품화면 안에 새로운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 내었고, 밤 도시의 장면을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 주었다.

본인이 위에 서술한 시각적 차이 이외에도 공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장소로 이동하여 개인의 방으로 돌아가는 공간의 변화에 대해 생각하였다. 저녁시간이 되면 학교나 직장에서 마주하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벗어나

주거지로 돌아와 개인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각자의 방에 머물게 된다.
본인은 오히려 모든 것을 구석구석 비추어 숨을 곳이 없는 낮의 일상으
로부터 개인의 모습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이동을
밤의 속성 중 하나라고 보았다.

낮과 밤은

공기도 온도도 기분도 나조차도 다르다.

어쩌면 하루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10월 3일 작업노트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이 없어짐으로 드러난 어둠은 낮에 활발하게 움직
였던 시각 활동의 빈도를 줄이고 다른 감각들을 더 예민하게 만든다.

나뭇잎이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잘 보이지 않아서

소리로만 전달되는 느낌은

더 강렬하다.

-10월 13일 작업노트

사람은 각각의 감각에서 얻은 정보를 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
타에서 일어나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감각에 장애가 있더라
도 다른 감각정보로 보충할 수 있다. 11)

11) 강영희, 「감각」, 『생명과학대사전-네이버 지식백과』, 201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29771&cid=60261&categoryId=60261>>

상대적으로 어두워진 밤에는 시각에 의존도가 낮아지고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청각, 촉각이 더 예민하게 활동하였고, 시각 이외의 다른 감각들이 더 활발하게 기능할수록 밤의 풍경을 더욱 입체적이고 다양하게 바라보며 느낄 수 있었다.

위에서 논한 밤의 세 가지 속성은 본인의 【작품 7】을 작업하면서 느꼈던, 시간에 흐름에 따라 드러나는 밤에 주된 변화이다.



【작품 7】 광아람, 태양의 가려 못 봤던 것들, 227.3cm×181.8cm,
장지에 수묵채색, 2017

4. 도시의 다양한 장면

본인은 밤의 풍경을 더 넓은 시야로 조망하기 위해 높은 곳을 찾아다녔다. 가까이에서 경험한 밤 풍경 이미지가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대상이 되었다면, 먼 곳에서 조망한 거대한 도심의 야경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제3자의 입장이 되어 대상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풍경 속에는 쌀알보다 작아 보이는 각기 다른 모양을 지닌 다양한 타자가 다양한 삶의 풍경을 보여준다. 멀리서 바라본 도시의 밤 풍경을 ‘다수의 밤’이라고 명칭하며, 전체적으로 풍경을 보았을 때는 주변과 다를 것 없이 보이지만 카메라를 ZOOM 하면 전체적으로 보이던 대상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전에는 안 보이던 구체적인 이미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본인이 표현한 작품에는 거대한 도시의 풍경이 보이지만 작품화면 안에 구성된 건물 안, 거리 위, 버스 안에 다양한 타자들이 공존하고 있을 다양한 풍경을 바라보게 되었다. 퇴근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높은 빌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거리에 술 취한 사람들, 한강 둔치를 달리는 사람들, 골목을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타인들이 가지고 있을 이야기들을 상상하며 작업하였다.

산꼭대기에서 보았던 서울의 밤 풍경은 조금만 시선을 돌려도 이 전에 보았던 풍경과는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었다. 【작품 8】 , 【작품 9】 , 【작품 10】 , 【작품 11】 는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도 비슷하지 않은 다양한 삶의 풍경을 각각의 화면에 구성하여 시리즈로 제작한 작품들이다. 각각의 화면 안에 각기 다른 불빛의 색을 주로 사용해 도시의 다양한 장면을 이미지화하고자 하였다.



【작품 8】 곽아람, <scene 1>, 162.2cm×130.2cm, 장지에 수묵채색, 2017



【작품 9】 짝아람, <scene 2>, 162.2cm×130.2cm, 장지에 수묵채색, 2017



【작품 10】 콕아랍, <scene 3>, 162.2cm×130.2cm, 장지에 수묵채색, 2017



【작품 11】 광아람, <scene 4>, 162.2cm×130.2cm, 장지에 수묵채색, 2017

【작품 12】는 카메라로 포착된 저녁 6시 21분의 장면을 보여준다.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지만 본인이 카메라에 담은 6시 21분의 장면은 변함없이 그대로이다. 셔터를 누른 순간의 장면이 작업으로 옮겨졌고 그 순간 카메라 화면 속에 함께 존재하는 대상들이 본인의 작품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작품 12】 광아람, 6시21분, 227.3×181.8cm, 장지에 수묵채색, 2017

IV. 결 론

본 논문은 밤 풍경을 통해 개인적인 정서를 표현하여 제작한 작업과 21세기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다양한 도시의 풍경을 본인의 시각으로 표현하여 제작된 작업에 대해 서술하였다. 시간에 흐름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개인의 감정은 이미지가 없으나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닌 감정을 밤 풍경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작업의 시작은 노력한 만큼 보장받지 못하는 타인들의 이야기를 뉴스나 SNS를 통해 쉽게 접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본인이, 사회에 대한 불신과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품은 감정을 표현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룻길에 버스 안에서 차창 넘어 바라본 밤 풍경은 그동안 스쳐 지나친 일상의 한 풍경이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자각하는 순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던 풍경은 이전과는 다른 낯선 이미지로 다가왔으며 낮에서 밤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본인의 감정이 더 고조되었음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투영하는 대상은 밤의 풍경이 되었음을 설명한다.

대상에 변화는 없지만 개인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변화하는 이미지에 대해 관찰하게 되면서 본 연구자는 매일매일 변화하는 불안의 감정을 일기를 쓰는 행위와 같이 작품을 그리며 기록하였고, 하루의 감정을 되새기며 표현하는 기록 행위를 통해 불안한 감정의 해소와 정신적 안정을 갖게 되었음을 서술한다.

불안의 감정을 대상에 투영하여 이미지화하여 표현할 때, 채도가 낮은 색채를 선택하여 흐릿하고 뿌옇게 표현하였는데, 본인이 생각한 불안의 이미지는 어둡고 검은색이 아닌 흐리고 희뿌연 이미지이다.

작업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의 밤 풍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멀리서 조망하여 관찰한 대도시의 풍경 안에 함께 하기보다, 바라보는 주체가 되어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게 만들었다. 같은 공간 위에 함께 공존하는 다양한 타자들의 삶의 풍경을 각기 다른 도시의 장면에서 다양한 색채를 사용해 시리즈 형식으로 구현하려 하였고 화면을 구성하는 주요한 색은 야경을 이루는 불빛의 원색을 이용하였는데, 다양한 풍경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상의 내용은 본인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작업한 작품을 토대로 연구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본인은 개인과 타인의 삶을 바라보며 같은 시공간에 속한 인간이 사회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고 홀로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과 연약한 자아에 대한 탐구를 통해 본인만의 표현양식과 개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작업하며, 작품의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연구하여 보는 이들의 더 많은 공감이 형성되길 바란다. 또한 세상을 겹겹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여 본인의 작업의 태도가 작품에 묻어나서 보는 사람 또한 세상을 겹겹히 느낄 수 있는 작업을 이어나가고 싶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가오상젠, 『창작에 대하여』, 주식회사 돌베개, 2013.

윌 곰퍼즈, 『발칙한 예술가들』, (주)알에이치코리아, 2016.

윤난지 외 지음, 『한국 동시대 미술:1990년 이후』, (주)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고연희, 『테마한국문화사06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 도서출판 돌베개, 2007.

이근미, 『아티스트로 살아남기』, 이다북스, 2018.

마틴 게이퍼드, 『다시, 그림이다-데이비드 호크니와의 대화』, 디자인하우스, 2012

캘리 그로비에, 『세계100대 작품으로 만나는 현대미술특강- 100 WORKS OF ART THAT DEFINE OUR AGE』, 생각의길, 2017.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2권-20세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휴머니스트, 2002

PUBLIC ART, OCTOBER 2018 Vol.145

ABSTRACT

A Study on Emotional Expressions Reflected via Nightscape

– With a Main Focus on the Author's Work –

KWAK, A Ram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I live in 21st century urban Republic of Korea. I am part of a society where it has, not only achieved medical innovation to live a century accompanied by accelerated economic growth but also gave birth to a generation called '88 Dollar' full of anxiety.

The advent of YOLO, with a spirit of Carpe diem not investing on uncertain future, well depicts shaky young generation who tends not to aspire daring dreams under unstable reality. The anxiety and weak self-awareness I have as part of this society, is also well illustrated through my artistic expressions and process on my drawings.

I have observed that the level my anxiety elevated through the course of time from daytime to night and the impressions on each nights differed depending on my emotional state.

Drawing night-scapes everyday is equivalent to writing diaries on everyday lives of life and my emotional state. This paper intends to demonstrate how the act of drawing night-scape, which makes me confront anxiety and weak self-awareness, has relieved heightened emotions and give psychological stability. Weak and delicate pastel colors were used rather than dark blue, to depict the night-scape so that it would better demonstrate how I observe the night sky under my shaky emotional state.

Then I expanded my drawing object from regular night-scape, easily observed in my everyday life to much bigger night-scape of urban Korea. To enable the expansion, I sometimes stood at the top of the city and gained a 3rd party perspective of Seoul city, as an observer. The top view, has allowed me to see how under the same sky, there could be so many different lives and perspectives, in the center of which I live. Through this paper, I will be illustrating how my drawings well depict contemplations on my emotional metamorphosis and diverse lives of others.